

목포시, 해상풍력 플랫폼센터 준공

357억원 투입 지상 4층 규모 조성 적치·유지보수 등 실시간 모니터링

목포시는 국내 최초로 목포신항에 건립되는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센터'가 6월 준공된다고 29일 밝혔다.

플랫폼센터는 총사업비 357억원, 연면적 3,755㎡, 지상 4층 규모로 조성되며, 해상풍력 산업의 전 과정에 대한 통합 관리 기능을 수행한다. 향후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의 핵심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플랫폼센터는 해상풍력 기자재의 적치·운반·설치, 발전단지 운영·유지보수까지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필요한 기술과 데이터를

통합 관리해 프로젝트 기간 단축과 효율성 향상을 이끈다.

플랫폼센터는 기업입주 공간과 다양한 규모의 회의실을 갖춰 관련 기업과 기관의 사업 활동을 지원한다. 1층에는 홍보관을 마련해 시민 친화적 공간으로 운영된다.

플랫폼센터는 6월 준공 이후 7월부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녹색에너지연구원을 비롯한 국내외 기관들이 입주할 예정이다. 9월 통합관리시스템을 완비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목포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용항만·배후단지·연구기관을 모두 갖춘 해상풍력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플랫폼센터가 위치한 목포신항은 해상풍력 기자재의 적치·조립·운반·설치가 가능한 해상풍력 특화 항만이다. 50

만㎡ 규모의 배후단지를 활용할 수 있어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구축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플랫폼센터는 해상풍력 관련 국책연구과제 수행, 항만물류 시스템 고도화, 기술지원 등 산업 전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목포시는 플랫폼센터의 해상풍력 특별법상 전문연구기관 지정을 추진하고 국가 연구 예산 확보와 연구 역량 강화에 매진할 계획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해상풍력 특별법 통과와 신안 3.2GW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 등 유리한 여건 속에서 플랫폼센터의 준공은 산업 경쟁력 강화의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다"며 "추가 전용부두 조지 확보 등 산업인프라를 확충해 기업 유치와 지역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박승경 기자



장성군이 최근 황룡승전기념공원에서 '제131주년 장성황룡 동학농민혁명군 승전기념식'을 개최했다.

장성군 제공

장성군, 황룡전적서 동학농민군 승전기념행사

장성군은 최근 황룡승전기념공원에서 제131주년 장성황룡 동학농민혁명군 승전기념식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기념식에는 동학농민군 유족과 후손을 비롯해 김한중 장성군수, 이개호 지역구 국회의원, 사회단체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장성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가 주관하고 전남도와 장성군,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후원했다. 기념식은 △폐정개혁 12개

조 낭독 △동학농민군승전기념탑 조성 관련 나상옥 조각가·곽재구 시인 감사패 전달 △시 낭송 △황룡전투 재현 창극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장성황룡전적은 1894년 관군과의 전투에서 처음으로 승리한 격전지다. 대나무 장대와 죽창을 든 동학농민군이 소총과 야포로 무장한 정예군에 맞서 대승을 거뒀다. 1998년 국가지정 사적 제406호로 지정됐다.

장성군은 6월 '장성황룡전적 종합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국가유상청 승인을 앞두고 있다. 장성군은 승전기념공원, 방문자센터, 전시추모관, 동학수목테마공원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한중 군수는 "131년 전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은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오늘날 우리 가슴에 살아 숨쉬고 있다"며 "장성황룡전적에 역사·문화·교육 콘텐츠를 더해 자긍심을 높이고 가치를 계승하겠다"고 말했다. 장성=전일용 기자



신안소방, 영농기 농촌 일손돕기 봉사활동

신안소방서는 본격적인 영농기와 수확철을 맞아 의용소방대와 함께 지역 고령 농가를 대상으로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마늘농가에서 진행된 봉사활동에는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등 30여명이 참여해 마늘 뽑기, 수확물 운반, 밭 정리 등을 실시했다.

신안소방서는 오는 6월 3일과 5일 양파 수확과 모내기 등 일손이 필요한 농가를 찾아가 다양한 품목의 농작업 지원에 나서 예정이다.

류도형 신안소방서장은 "지역 농가들이 농번기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군민과 삶을 함께 나누는 지역의 동반자로서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주열 기자



나주경찰, 주민과 함께하는 가족순찰대

나주경찰은 오는 6월 25일까지 지역 치안 및 안전 문제를 주민과 함께하는 가족순찰대 활동을 전개한다고 29일 밝혔다.

나주경찰은 지난 28일 빛가람동 일대에서 초등학생·학부모 등 30여명과 함께 합동 순찰과 '노쇼 사기' 예방 홍보 활동을 실시했다.

가족순찰대 활동에 동참한 참가자는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해소되고 안전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는 것을 체감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권석진 나주경찰서장은 "주민들과 함께하는 합동 순찰 및 치안 정책 관련 의견 교류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겠다"며 "안전한 나주 만들기를 위한 민·경 협력 치안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나주=이재순 기자



함평군 대동면지사협, 무선 전등 리모컨 설치

함평군 대동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역 주민들의 후원으로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 10가구에 무선 전등 리모컨을 설치했다.

무선 전등 리모컨 설치의 거동이 불편한 노인인과 장애인 가구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야간 낙상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각 가정에 무선 리모컨으로 조작이 가능한 전등을 설치하고, 기존 전등도 LED 전등으로 교체했다. 지역 업체가 기부한 추어탕도 전달하며 온정을 나눴다.

이재갑 대동면 지사협 민간위원장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어려운 이웃에게 꼭 필요한 도움을 주겠다"며 "나눔 문화가 지역 전역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함평=윤예중 기자

진도군, 지난해 1억 이상 고소득 어업인 403명

의신면 148명 가장 많아

진도군은 2024년 기준 '1억원 이상 고소득 어업인' 현황 조사결과 2023년 376명에서 7% 증가한 403명으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조사는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어업인을 발굴·홍보해 진도군 수산업의 비전을 제시하고 해양수산 정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하기 위해 추진됐다.

고소득 어업인은 의신면이 148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군면 145명, 조도면 38명, 군내면 25명, 임회면 25명, 지산면 15명, 진도읍 7명 순이었다.

소득별로 구분하면 1억원 이상·2억원 미만인

어업인은 217명으로 전체의 53.8%를 차지했다. 2억원 이상·3억원 미만인 어업인은 61명(15.2%), 3억원 이상·10억원 미만인 어업인은 114명(28.3%), 10억원 이상 어업인은 11명(2.7%)이었다.

업종별로 구분하면 양식어업 종사자 359명(89.1%), 어선어업 종사자 20명(5%), 가공·유통 분야 20명(5%), 기타 4명(0.9%)이다.

고소득 어업인이 증가한 요인은 김을 비롯한 양식 어업인의 소득 증가와 양식어업 활성화 등으로 분석됐다.

진도군은 2024년 2,284억원, 2025년 2,490억원의 김 위판액을 기록했다.

진도=박병호 기자



함평군은 최근 군청 재난상황실에서 읍면별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추진실적 보고회를 개최했다. 함평군 제공

함평군,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확대나서

함평군이 지속가능한 축산업 기반 조성하고 환경친화적 축산을 위해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확대에 나선다.

함평군은 최근 군청 재난상황실에서 읍면별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추진실적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깨끗한 축산농장은 가축 사육밀도 준수, 분뇨 적정 처리, 주변 환경과 조화 등 농림축산식품부가 정한 일정 요건을 충족한 농가로, 주민에게 안전하고 품질 좋은 축산물을 공급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함평군은 올해 52호의 깨끗한 축산농장 신규 지정을 목표로 읍면별 대상 농가를 발굴해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현재까지 19개 축산농장이 신청했다.

함평군 관계자는 "연내 목표 달성을 위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를 추진할 계획이다"며 "축산 악취 없는 환경친화적 축산 기반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평=윤예중 기자

영광형 키즈카페 건립 용역 착수보고회

영광군은 최근 군청 소회의실에서 영광형 키즈카페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영광형 키즈카페 건립 사업은 공약사업으로 지역 내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창의적인 놀이 공간을 제공하고, 부모들에게는 양육 부담을 덜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번 용역은 오는 10월까지 5개월간 수행되며 △지역 수요 및 인구 변화 분석 △시설 기능 및 규모 설정 △적정 입지 선정 △운영방식 및

프로그램 구성 △경제성 및 정책적 타당성 분석 등을 포함한다.

영광군은 이번 용역을 통해 군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영광형 키즈카페를 설립하겠다는 구상이다.

장세일 군수는 "아이들의 웃음이 밝아지고, 가족의 일상이 따뜻해지는 '함께 키우는 영광'을 위한 첫걸음이다"며 보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이 향후 사업에 실질적인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광=서희권 기자

클릭! 고향속으로

신안소방, 영농기 농촌 일손돕기 봉사활동

나주경찰, 주민과 함께하는 가족순찰대

함평군 대동면지사협, 무선 전등 리모컨 설치